

하이파이저널

HI-FI JOURNAL

특집 오디오의 제3의 물결, 이탈리아 사운드

새로운 차세대 미디어 MD 그 모든 것이 알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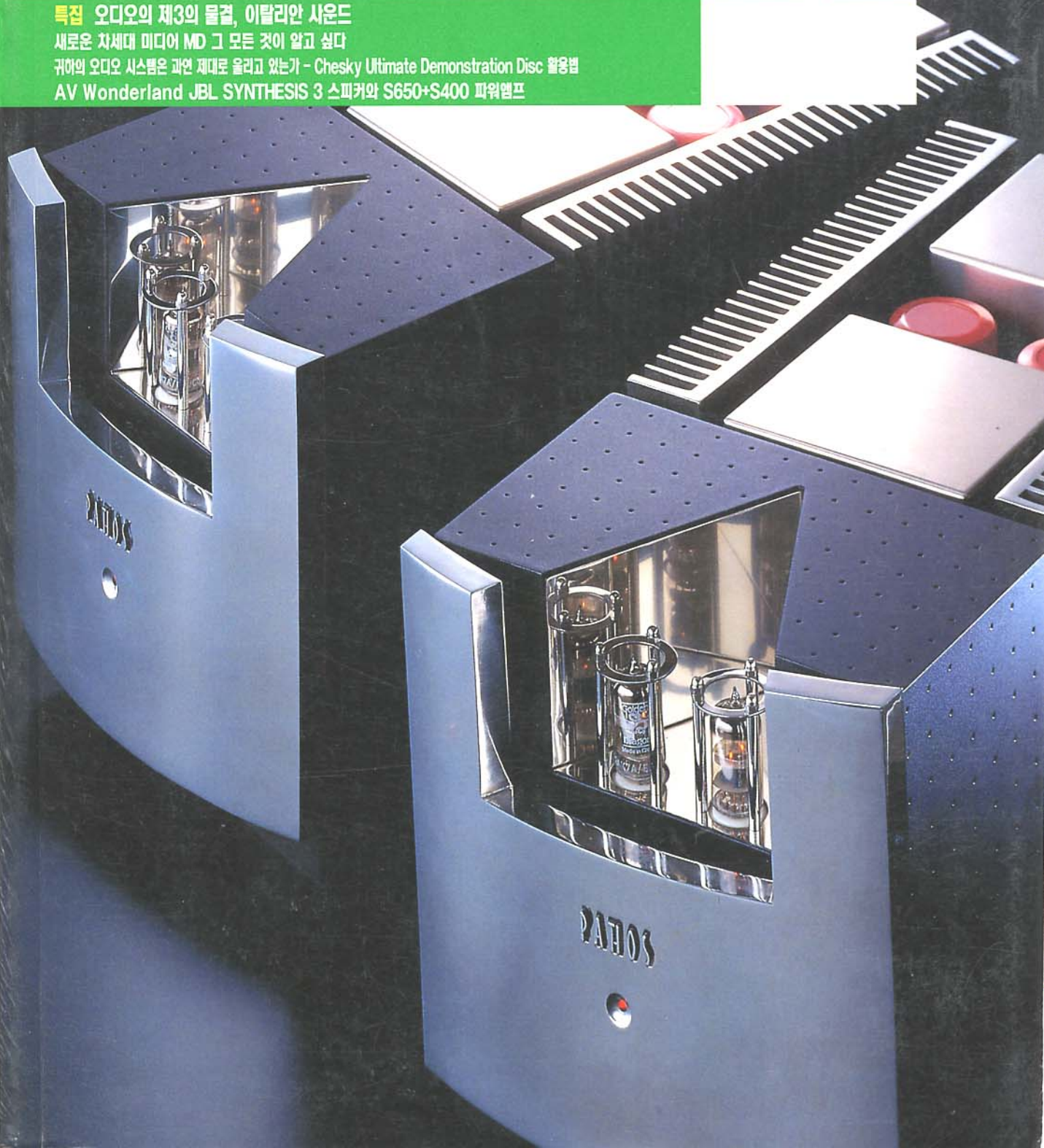
귀하의 오디오 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울리고 있는가 - Chesky Ultimate Demonstration Disc 활용법

AV Wonderland JBL SYNTHESIS 3 스피커와 S650+S400 파워앰프

21

특집/오디오의 제3의 물결, 이탈리아 사운드

새로운 차세대 미디어 MD 그 모든 것이 알고 싶다



PATHOS

음악을 사랑하는 세 사람의 만남에서
파토스의 역사는 시작되다

장경렬

인폴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다

이탈리아라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고대 로마 제국의 유적이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영광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곧 이탈리아라는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옛날의 영광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다. 현재의 이탈리아는 자동차, 기계, 섬유 등등 각종 공업 분야에서 대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염색, 패션 디자인, 가구 등의 분야에서 발군의 장인 정신을 보여 주는 나라가 이탈리아이기도 하다.

파토스라는 앰프 메이커는 바로 이런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설립된 지 불과 5년도 안 되어 파토스의 명성은 세계적인 것이 되었는데, 파토스의 제품에 눈길을 주기만 해도 우리는 이탈리아 국민 특유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제국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는 이탈리아 특유의 예술 정신도 보여주는 것이 파토스의 제품들이다.

사실 파토스라는 회사 이름조차도 과거 유럽의 예술 정신을 연상케 한

다. 이와 관련하여 파토스는 고대 회랍어에서 나온 단어로 '정념(情念)', '예술 작품에서 느끼는 연민의 정과 고뇌' 등을 뜻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파토스의 사장 지아니 보리나토의 설명에 의하면, 이 단어를 회사 이름으로 채택한 이유는 회사 설립에 참여한 세 사람, 즉 자기 자신 지아니 보리나토와 파올로 안드리올로, 가에타노 자니니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예술

에 대한 세 사람의 열정뿐만 아니라, 고대 회랍어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럽의 예술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파토스의 역사는 음악을 사랑하는



이 세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만남은 우선 1979년 당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던 보리나토와 예술사를 공부하던 안드리올로 사이의 우연한 만남

이탈리아의 오디오 브랜드 10



으로 시작된다. 이들 가운데 보리나토는 기타를 치고 안드리올로는 피아노를 쳤는데, 이들은 곧 즐기기도 할 겸 용돈도 벌 겸 2인조 악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함께 일을 하던 도중 두 사람 모두가 자니니라는 사람과 친구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니니는 그 지역 최고의 하이파이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대학생에게 언제

나 자유롭게 스튜디오를 찾아와 함께 음악 감상을 하거나 오디오에 관해 토론하도록 배려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곧 세 사람 사이의 우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디오의 제3의 물결, 이탈리아인 사운드

보리나토와 안드리올로에게 온갖 종류의 음악을 다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2인조 악단 활동은 두 사람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끝을 맺게 되었다. 이어서 이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력을 쌓아 가게 되었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세 사람 사이의 우정을 줄기차게 이어나갔다.

그러다가 세 사람이 힘을 합해 함께 일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 보리나토가 착안한 혁신적인 앰프 회로였다. 1993년 보리나토가 이 혁신적인 앰프 회로를 안드리올로와 자니니에게 설명할 당시만 해도 그 자신조차 제대로 작동할지 확실할 수 없었다. 어쨌든 실행에 옮겨보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시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랄 만한 것이었다고 보리나토는 회고한다. 이를 계기로 파토스라는 오디오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이 혁신적인 앰프 회로란 무엇인가. '인폴' (INPOL)로 명명된 이 회로는 무엇보다도 '부귀환 회로'를 포기하기 위한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부귀환 회로란 앰프 출력의 일부를 입력단에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앰프의 이득률은 떨어지나, 앰프 자체가 유도하는 신호의 일그러짐과 잡음을 줄일 수 있으며,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를 낮춤으로써 댐핑 팩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을 희생하면서까지 파토스가 부귀환 회로를 포기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회로가 어쩔 수 없이 음의 자연스러움과 선명도를 감소시킨다는 데 있다. 사실 이 회로를 포

트윈 타워스와 인파워는 대단히 세련되고 아름답다.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을 연상시키는 한 쌍의 히트 싱크, 전원 트랜스와 인덕터 코일이 담긴 니켈 도금의 철제 케이스 등 잘 계획된 예술 도시와도 같은 인상을 준다. 트윈 타워스와 비교해서 인파워는 어딘가 더 강인한 느낌을 준다.

기하지 않는 경우 제 아무리 뛰어난 설계에 의해 앰프를 제작하더라도 신호의 일그러짐을 막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인폴'인 것이다.

인폴의 특징 가운데 먼저 꼽아야 할 것은 출력단에 '싱글 엔디드 방식'으로 3개의 MOS-FET 반도체 소자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전압상의 이득을 제로 상태로 한 채 스피커 구동에 필요한 전류상의 이득은 필요한 만큼 얻게 된다. 또한 출력단 반도체 소자의 에미터에 대형 인덕터 코일을 사용함으로써 출력 임피던스를 줄이는 동시에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인폴의 또 하나 특징은 입력단에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진공관의 음색을 살리기 위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최대 전압 스윙을 극대화함으로써 일그러짐이 거의 없는 정현파를 얻는 데는 진공관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둘째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진공관의 음색을 살리면서 반도체 소자의 힘을 갖는 앰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파토스의 설명이다.

인폴 개념을 이용하여 파토스는 '트윈 타워스'라는 모델명의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

러나 트윈 타워스는 출력이 30W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효율이 낮은 스피커를 울리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트윈 타워스가 갖는 이러한 출력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75W 출력의 '인파워'이다.

인파워는 트윈 타워스에 사용된 인폴 회로를 채널당 2개씩 병렬로 연결하여 만든 것이다. 인파워의 회로 구성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공관의 최대 전압 스윙을 극대화함으로써 일그러짐이 거의 없는 정현파를 얻을 수 있지만 그 한계는 30W이다. 그 이상 출력을 높이게 되면 신호의 과다한 일그러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출력을 대폭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퍼드백 회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고심한 끝에 보리나토 사장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인폴 회로의 병렬 구성인 것이다. 즉, 2개의 인폴 회로에 동일 신호를 180도 위상차를 주어 병렬로 입력하는 방식을 생각해낸 것이다. 이런 방식에 의하면 플러스 쪽 신호의 일그러짐과 마이너스 쪽 신호의 일그러짐을 서로 상쇄할 수 있게 된다. 동일 신호에 180도 위상차를 주어 앰프에 입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밸런스 케이블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파워의 입력 단자가 XLR형 한 쌍만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디자인 면에서 트윈 타워스와 인파워는 대단히 세련되어 있고 아름답다. 먼저 트윈 타워스의 외관을 보기로 하자. 여의도의 쌍둥이 빌딩을 연상시키는 한 쌍의 히트 싱크, 전원 트랜스와 인덕터 코일이 담긴 니켈 도금의 철제 케이스 등이 잘 계획된 예

술 도시와도 같은 인상을 준다.

인파워의 경우, 전면에 삼각형으로 패인 홈이 있는데 그 안에 한 쌍의 진공관이 있으며, 뒤쪽으로는 인덕터 코일과 전원 트랜스를 담은 니켈 도금 철제 케이스와 앰프 좌우 양쪽 면을 장식한 방열판이 눈에 띈다. 이들 모두가 합쳐져 또 다른 미적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데, 트윈 타워스와 비교해서 어딘가 더 강인하고 웅만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앰프의 밑판을 열고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화려한 세계가 펼쳐진다. 사용된 부품이야 말할 것도 없이 최상의 것인데, 특히 트윈 타워스의 볼륨이 인상적이다. 원형의 로터리 스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방사형으로 배열된 저항 하나하나가 모두 파토스의 정성을 읽게 했던 것이다.

인파워의 경우 앞쪽 1/3 지점의 차폐판을 경계로 하여, 앞쪽에는 진공관 소자와 관련된 회로 기판이 있으며, 뒤쪽에는 출력단과 관련된 회로 기판 3장이 배치되어 있다. 원가 절약을 내세우며 1 개의 회로 기판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요즈음 전자 산업계의 추세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회로 기판 하나하나에서 타협을 모르는 장인 정신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두 모델 모두 토로이달형 전원 트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진공관을 위한 별도의 트랜스인 것이다.

파토스의 주요 제품들

● 트윈 타워스

트윈 타워스의 진가는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선명하고 따뜻하면서 차분한 음색, 넓고 깊은 음장과 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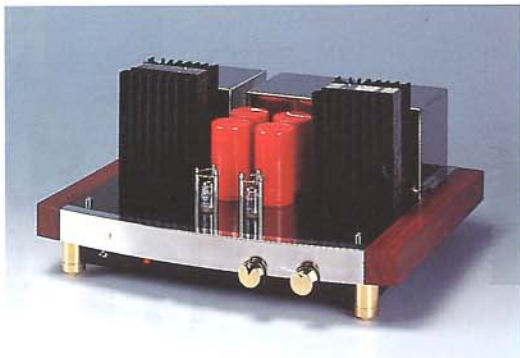
것이다. 물론 예전에는 이 앰프를 시청하면서 음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아 있다가나 뒤로 물러나 앉은 듯한 인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던래비 스피커와의 조합에서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말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음은 인파워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트윈 타워스는 나름대로 뛰어난 앰프이기는 하나 인파워와 겨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기가 트윈 타워스와 가격면에서 3배의 차이가 나는 인파워를 서로 비교하는 일 자체가 무리이긴 하다.

● 인파워

인파워 앰프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후 던래비의 SC4 스피커와 BAT의 VK-3i 프리앰프를 함께 시청하게 되었다. 인파워의 성능을 가늠해 보는 데 적절한 기기들이라는 생각에 마이크로메가의 스테이지 2 CD플레이어와 연결하여 시청에 들어갔다.

이 기기들을 통해 듣는 음악의 세계는 가히 압권이라 할 만하다. 특히 브람스의 교향곡을 시청하면서 필자는 실제로 연주장에 와 있는 듯한 착



트윈 타워스 W3,900,000
●실효출력:30W(8Ω) ●입력단자:포노1계통, 라인 3계통 ●입력 임피던스:100kΩ ●사용진공관:ECC83×2개 ●크기:W49×H25×D47cm ●무게:45kg



인파워 W12,000,000
●실효출력:75W(8Ω) ●입력단자:밸런스 1계통 ●입력 임피던스:100kΩ ●사용진공관:ECC82×1개, ECC83×1개 ●크기:W38×H45×D60cm ●무게:50kg

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넓고 깊은 음장,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음원의 위치, 음악의 전체적인 규모를 느끼게 하는 앰비언스, 어느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

음악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악기나 음의 개성이 살아나면서도 동시에 전체적 조화도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음악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는 말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밖의 여러 종류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저역에서 고역까지 조화롭게 잘 소화하는 조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POWER AMP
₩12,000,000

PATHOS TWIN T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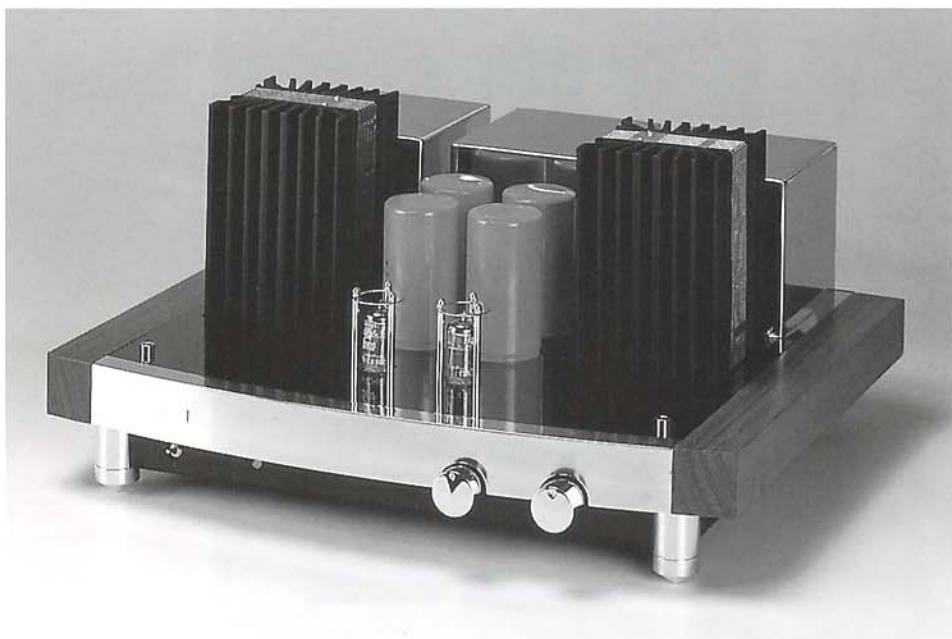
INTEGRATED AMP
₩3,900,000

철저하게 중립적인 음색 기품이 넘치는 사운드

‘전시회의 그림’과 같이 곡의 전개가 실로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다이내믹한 대응이 요구되는 관현악곡의 경우, 아무래도 소출력 앰프란 한계는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음악에서는 부족함을 거의 느낄 수 없었고, 별다른 컬러링도 발견되지 않았다. 철저하게 중립적인 음색의 사운드라고나 할까. 그러나 유연하면서도 온기가 있고 인간적인 열기도 느껴진다. 저역에서 고역까지 평탄하게 재생된다는 점이 이 앰프의 큰 장점이다. 게다가 여유있는 표현력 또한 돋보이는 특성이다. 저역보다는 중고역의 표현력이 충실한 편인데, 딱 들어찬 듯한 느낌을 주는 분명한 울림세에는 호감이 간다. 반면, 저역의 경우, 다소 무디게 느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운드 자체는 풍부한 편이었다. 보컬에서 특히 특성이 잘 발휘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임장감도 좋은 편이고, 자연스러우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사운드였다.(나상운)

투명하고 단정한 음색 그 신선함에 압도되다

재질과 색상의 질서정연한 조형미는 다분히 감각적이다. 음색도 그렇다. 오염되지 않은 신선함과 어둡지 않은 깊이와 늘어지지 않은 양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열기까지 느껴져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가장 잘 어울리는 스피커에서 울려주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제5악장은 어둡고 묵직한 충주부가 계속처럼 깊게 흐르고, 중턱의 광채가 얼굴을 내밀고 나면, 봉우리까지 음상의 실체가 드러난다. 묘한 것은, 스케일에 한계를 지녔으면서도, 그것을 타할 여백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프라노 블랙웰의 ‘12월의 노래’ 중 세번째 노래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자연스런 육성이어서 정감이 더하다. 맑고 따뜻한 피아노음은 핵이 느껴지고, 현악기는 고현과 저현에서 모두 감촉이 좋고 윤기가 도는 양질의 울림이다. 투명하고 단정한 음색으로, 이 앰프의 동맥을 이루고 있는 질 좋은 중역이 그 주춧돌이다.(박용태)



●설효출력:30W(8Ω) ●입력단자:PHONO 1계통, 라인 3계통 ●임력 임피던스:100kΩ ●톤 컨트롤:없음 ●큐팅:없음 ●SN비:90dB ●사용전공관:ECC83×2개 ●크기:W49×H25×D47cm ●무게:45kg ●수입원:리마케팅(929-6053)